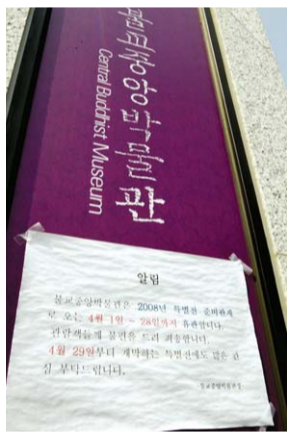


특화된 기획·운영의 묘 절실

집중기획

개관 1주년 맞은 불교중앙박물관 현황과 과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2007년 3월 26일 개관 당시 조계종 중앙성보박물관으로 지역 사찰 성보박물관의 특성과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월평균 관람객 3000여명(2007년 12월 현재)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어 성보박물관을 통합·관리하기는커녕 개별 박물관으로서 홀로서기도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주년을 맞은 불교중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공간·소장품 부족...전시 다양화 필요
불교중앙박물관은 전시시설 1,192.1㎡(약 360평), 수장고 568.2㎡(약150평)이다. 국립 박물관 중 하나인 국립공주박물관의 전시실 면적 261평과 비교해도 전시실 면적은 좁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개관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불교중앙박물관이 위치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는 박물관 시설로 설계되지 않아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박물관 시설로는 전장이 낮고 방음·방습·방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소장 문화재와 전시 문화재의 수도 문제다.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는 1372점(기탁유물 포함)으로 국립공주박물관

둘러 받기 운동 등을 전개해 소장유물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보삼 회장(한국사립박물관협회)은 "한정된 공간에 선별된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은 모든 박물관의 고민이다. 평면적 전시보다 IT기술을 도입해 영상과 3D 등 전시기법을 다양화해 협소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시는 있어도 '교육'은 없다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3만5000여명, 이중 유료 관람객은 1만여 명으로 이들이 낸 입장료는 전체 박물관 예산 1억6000여 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1500여 만원이다. 그마저 박물관 대표 관리

업은 '개관 특별 <불보>전'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의 상실전 뿐이었다. 특별전은 개관특별전이 3월 27일~5월 24일,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이 5월 18일~24일 열려 모두 2007년 상반기에 집중됐다. 하반기에는 상실전의 행사가 전무했다.

2008년 전시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관 1주년 기념 <법보>전'이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준비되고,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외길 김경호 초경 사경 전시회'가 올해 전시계획의 전부다.

연간 3개의 전시프로그램 외에는 박물관 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강좌 등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교육프로그램도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뿐이다. 지난 3월 박물관을 찾은 송석호(35, 서울 영등포구)씨는 "불상 만들거나 불화 그리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없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교중앙박물관 운영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소한 공간으로 전시 운영에 제약이 있다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연례 문화상품 등이 하나도 없는 것은 분명 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비스마인드 이대로 안돼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은 휴관 중이다.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을 준비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박물관측은 휴관 시작일 당일 매표소와 입구에 공지를 써 붙였을 뿐 사전 공지는 하지 않았다. 불교계 언론은 물론이고 조계종 홈페이지에도 휴관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일일 평균 1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지만 4월 28일까지 300여명이 불교중앙박물관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2면에 계속> 여수령·조동섭 기자

소장 문화재 부족·상설展 외 프로그램 빈약 관람객수 月300여명...무료관람제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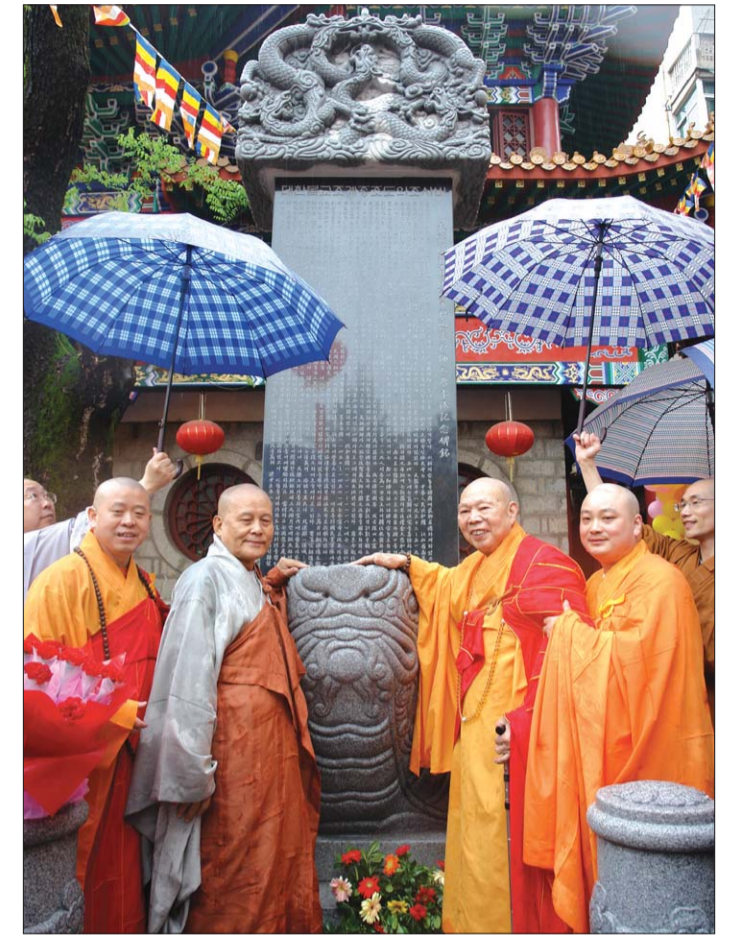
의 7000여점에 비하면 20%수준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볼거리가 없다"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실정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성보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는 보물 등 6점에 불과하며 전체 소장 문화재의 10%인 115점만 상설 전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장 범하 스님은 "전시 설비는 최고 수준이지만 공간이 협소하다"며 "현재 박물관 소장 문화재에 대한 지정문화재 확장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유물을 기탁한 소장처부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사찰 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성보문화재 중 지정문화재 지정을 늘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후원회 구성 및 성보 되

인건비 1000여 만원을 제외한 순수익은 500만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부터 전국 31개 국립 중앙·지방 박물관과 현대미술관 등의 무료관람제가 실시되면 불교중앙박물관 등 사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하 스님은 "입장료 수입이 박물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입장료는 박물관의 수입보다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편"이라 설명했다. 스님은 "현재 지역사찰 성보박물관 등 불교계 성보박물관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한 뒤 "각 박물관마다 특성을 살려 전시회를 유치하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2007년 한 해 전시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한국 불교계 관계자들과 중국 불교계 관계자들이 4월 11일 중국 우민사에서 '도의조사 구법기념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사진=공동취재팀>

도의국사 구법기념비 제막

중난창 우민사에 건립...한 중불자 300명 참석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조조(宗祖) 도의국사(道義國師)의 구법지인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 우민사(永敏寺)에 도의조사 구법기념비를 세우고 4월 11일 제막식을 봉행했다. 육조 혜능선사의 법맥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에 남종선을 전래한 도의국사는 조계종의 조조로 추앙받고 있다.

조계종과 중국불교협회(회장 일성)는 11일 우민사에서 한·중 불교계 대표 및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조조 도의조사 입당 구법기념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지관 스님은 선양사를 통해 "조사 구법지인 이곳에 구법기념비를

건립해 법은(法恩)에 보답코자 한다"며 "이 비문은 한국 조계종과 중국 일제종이 동근동조(同根同祖)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한중불교교류 1700년과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불교간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징표로 영원히 종문(宗門)의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도 "조계종 도의국사입당구법기념비 제막식은 중한 양국 불교계의 일대 거사라 할 수 있으며 양국 불자들의 우의 증진에 있어 역사적 의미를 지닌 행사"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관련기사 2면> 여수령 기자

18대 총선 불자의원 56명 당선

17대 국회보다 22명 늘어

108명의 불자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42명과 비례대표 14명 등 불자 국회의원 56명이 당선됐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 불자의원 34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전체 18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8.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지역구 의원 245명 중 17%, 비례대표 의원 54명 중에

서는 25.9%를 차지한다.

본지 조사와 불교정책기획단(단장 승원·허경만)이 4월 10일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18대 총선 당선자 중 불자의원은 한나라당 36명, 통합민주당 10명, 친박연대 2명, 자유선진당 2명, 무소속 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7대 국회 정각회장 이해봉 의원(무소속, 대구 달서구)과 부회장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경남마산)을 비롯해 강길부 김재경 김학송

서병수 유승민 이계진 이광재 장윤석 정갑윤 주호영 최병국 의원 등 정각회 회원 15명이 대거 재선에 성공했다.

또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인 이용희 의원, 지도위원인 강창일 권선택 의원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문순 의원(前 MBC 사장)은 현재 조계종 미디어위원을 맡고 있다. 박근혜(대구 달성군) 추미애(서울 광진구) 박순자(안산시 단원구)을 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 김을동 정옥임 의원 등 여성불자의원 11명도 당선됐다.

한편, 18대 총선에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진 종교 기반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는 물론 3%

득표 정당부터 주어지는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기독교사랑실천당(대표 최수환)은 2.59%(443,747표)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245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가정당(총재곽정환)은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고 정당 득표율도 1.05%(180,852표)를 얻는데 그쳤다.

<관련기사 8면> 여수령 기자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1 010-7504-4521 (강령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태현 변호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칠판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칠판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연등 (정품)

법당등(공당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